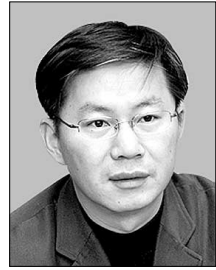


해방 60년을 맞은 올해 백두산 관광길이 열린다. 우리 땅 밟고 민족의 성산을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일제의 침략과 분단으로 얼룩진 20세기 민족사를 뒤로 하고, 21세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준비하는 한민족에게 이 소식은 벅찬 감동으로 다가온다. 중국땅을 통해 오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왔을 것이다. 왜 그 먼 길을 돌아서 올라야 하는 지 말이다. 그리고 언제쯤 우리 땅을 밟고 오를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이다. 바로 8월 말 시범관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 땅 백두의 가을 천지와 단풍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자는 지난 6월 세 번째로 백두산에 오를 기회가 있었다. 그날 따라 천지는 운무에 싸여 그 청량한 쪽빛을 보여주지 않았다. 중국쪽 정상에서 남쪽을 바라보며 다음에 오게 될 때는 꼭 우리 땅 개마고원 끝자락 백두를 오르고 싶다는 소망을 부처님 전에 빌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 될 날이 멀지 않을 거라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소망이 현실로 다가선 지금 설레는 마음 가눌 길이 없다.

백두의 언덕을 오르는 모든 이들은 '마음 속의 통일'을 곧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민족에게 백두산은 단순한 등산 코스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숭고한 대상이다. 우리에게 백두산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민족의 수난과 영광을 묵묵히



**불자 세상보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통일을 여는 백두산관광**

지켜봐 온 큰 언덕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두산 관광길이 열린다는 것은 민족의 수난에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금강산관광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맞보고 있다. 수많은 남북 사람들이 금강산에 족적을 남기고 있다. 아름다운 산하를 보고 그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뭔가 허전하다. 이제 백두산을 오르면서 우리는 온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김포공항을 떠나 북녘땅 순안, 삼지

연공항을 거쳐 백두밀림을 북녘의 동포들과 오르내릴 때, 민족의 동질성은 좀 더 완결적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 개인 단위의 상처는 새살이 돋아나 말끔히 치유될 것이다.

백두산관광의 의미를 살펴보면 한 두 가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다. 우선 금강산관광에서도 경험했지만, 남북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관광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백두산관광 자체가 북한 내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북한체제가 갖는 부담은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백두산관광은 관광 자체를 넘은 의미가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상징으로 남북한 당국이 소중히 가꿔야 하는 자산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삼지연공항 시설 등의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 가능성 또한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북한은 식량난 속에서도 백두산을 자연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민족 최고의 자연 자산을 관리한다는 자부심으로 최소한의 조심스런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향후 민족생태공원으로 유지시켜 남북한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는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백두산관광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남북한 당국은 금강산관광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백두산관광에서 되풀이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록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교류협력사업의 모범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백두의 언덕이 분단의 상처를 아우르는 평화와 통일의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해방 60년을 맞는 지금, 백두산관광 실현은 분명 최고의 낭보이다. 8월의 태양 아래 발길은 벌써 천지가 가 있다.

**불자의 눈** 는설위행 기명사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며, 계율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계율을 수지하지 않고 깨달음을 구한다는 것은 모래를 찌서 밥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는 모든 것을 낱알이 경계의 말씀을 일러주시고 일깨워주셨으며, 열반하실 때 "계를 스스로 삼으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계율을 부처님 모시듯 스스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수계산림은 출가와 재가의 계단법에 따라 개설되어 왔다. 출가와 재가의 공동체적 대중법회로 시행되는 '동화사 계율대법회'는 매우 귀한 자리다. 이번 법회가 대중에 중요시 되는 몇 가지 의미를 짚어보자.

첫째, 불교의 교단사적 입장에서는 매우 값진 법회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가 1700여년의 오랜 전통을 가졌다고 하지만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교단사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사실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따라서, 불교교단은 율장정신

**동화사 계율대법회의 의미**

에 따라 출가인 비구·비구니와 재가인 우바세·우바니로 구성되어 상호존중하면서 수행과 교화를 통한 깨달음의 길로 함께 정진하는 공동체적 신성한체임을 인식하고 교단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계율의 성립과정과 남·북방 율전에 담긴 계율의 참 뜻을 이해하여 불자로서의 긍지를 높일 수 있다. 사실 재가불자라고 하지만 불자가 되는 첫째 조건은 계율의 수지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차에 율전을 통한 출가와 재가의 위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계율은 법통이다. 부처님으로부터 우바리존자에게 전수된 계맥이 오늘날까지 전수되어 오늘날 불교를 수행하는 모든 불자가 존재하고 있다. 한국 불교의 계맥을 확실히 인식한다는 것은 한국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계율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정화운동이다. 불교의 계율이 출가자만의 계율이 아니라 사회의 그 어떤 사람들이라도 계율을 수지한다면 깨달음의 성취로 정토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화사 계율대법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법산(동국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비만과 과식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레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잡아함 천식경>

국제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병균 없는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국민의 60%가 과체중이고 이 가운데 25% 이상을 비만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식생활의 서구화와 운동부족으로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이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 비만은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에게까지 전염되어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등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만병의 근원이다. 따라서 나라마다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

2500년 전, 인도 코살라의 파세나디 왕은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똥똥한 왕은 기원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았다. 이때 들려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음식의 양을 조절하라'는 것이었다.

그 후 왕은 시종에게 식사 할 때마다 부처님이 들려주신 계승을 외우도록 했다. 공양간의 시작이라 하였다. 그때부터 왕은 조금씩 식사의 양을 줄이고 과식을 피했다.

몇 달이 지나자 살도 빠지고 옹모도 단정해졌다. 다시 부처님을 찾은 왕은 "음식의 양을 조절해 해서 살을 빼도록 하여 현세에 이익을 주셨고, 중도의 법을 알게 해 현세와 후세의 이익을 함께 주셨다"며 감사드렸다.

결국 비만탈출은 자신과의 싸움이야 수행이다. 갑자기 늘어나는 체중으로 휩쓸려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공양계 외우기를 다짐해본다. ■ 이준엽(취재부장·호남주제)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 대안 없나**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동의한다. 문화재 관람의 대가로 관람료를 받는다는 아이디어에는 국민 모두의 재산인 문화유산을 하나의 관람대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깔려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찰 문화재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신심을 느낄 수 있겠는가? 이런 면에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는 당연하다.

그렇지만 무조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사찰 혼자서 수많은 불교 보물과 유적들을 가꾸고 지켜낸다는 것은 무리이다. 특히 문화재 관람료는 그동안 문화재를 보호 수선하는 주요 재원이 돼 왔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면서 문화재 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문화재 관람료만 폐지한다면 문화유산을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재원 마련 방안을 세웠다면 그것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문화재 보수 유지비용을 투명하게 집행할 때 한국 '문화의 보고' 불교가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이다. ■ 신재석(서울반포동)

**불교계 군 포교에 전력 기울여야**

원불교가 군부대 내에 교당을 설립했

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현대불교신문 붓다뉴스에서 이를 다룬 기사를 보았다. 나는 두 기사를 보고 군 포교를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정말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원불교는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통해 군 포교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불교계는 자기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만 걱정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군부대 내에 교당 하나를 세우기 위해 원불교가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다.

개신교에서는 비전 2020운동을 통해 군불자의 75%를 신자로 만들겠다는 호언을 하고 가톨릭은 군중교구를 세워 매년 수많은 청년들을 신자로 만들고 있다. 원불교가 군 포교에 가세하고 여기에 대순진리회 등등 신종종교들도 가세할 태세다.

이런 시점에서 7월초까지 발족한다는 군종특별교구의 성립은 '땡 귀머슴' 못 소식이다. 왜 이렇게 불교계가 미래 불교를 이끌어갈 청년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지 가슴 아플 따름이다.

과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후대에 전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긴다.

불교계는 이제라도 청소년 청년 포교를 위해 정말 새로운 서원을 세워야 할 것이다. 조계종 군중교구는 조계종만의 기구가 아닌 모든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하고, 군 포교를 위해서라면 누구나 팔을 걷어 올릴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제발 다른 종교가 청소년 포교에 노력하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 박영진(안동)

**불사 체계적 시스템 있어야**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최대로 만드는데 애쓰는 불사문화가 미술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윤범모 교수의 주장을 들었다. 윤범모 교수가 <불교평론> 23호에 발표한 글에 따르면 전통성에 바탕을 둔 장인과 현대성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가가 서로 협력하면서 제3의 창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장점을 서로 외면하는 것이 지금의 풍토인데 이 같은 상황에서 창의성과 시대정신이 담긴 불교미술의 발전은 요원하다.

아직 바탕이 없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으니 그런 것이다. 불사를 발주하는 주체가 그걸 수행하는 장인이나 의욕만 앞섰지 그걸 담아낼 근거나 소양이 없는 탓일 것이다.

문제는 동국대가 미술학과 사학과 조경학과 건축학과 전반기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근대 빨리 정신 차리고 달려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다. ■ 과도기(붓다뉴스)



**향기나는 TV, 불교TV**

술향 가득한 큰 스님의 말씀은 삶의 지혜를 밝혀주고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그 곁에 불교TV가 있습니다.